



풍년기원 '용전들소리'

농사에 바쁜 가운데서도 잠시나마 허리를 펴고 쉬어가기 위한 '백중놀이'가 14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용전동 들녘에서 펼쳐졌다.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광주 북구와 (사)지산용전들소리보존회가 개최한 백중놀이에서 회원 100여 명이 용전들소리를 재현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자본금 바닥난 '카보' 아직도 역대 연봉

자본금이 바닥나고 기금마저 대폭 축소된 F1(포틀러인) 대회 운영법인인 카보(KAVO·Korea Auto Valley Operation)의 인건비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현주(민노·비례) 전남도의회의원이 14일 F1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KAVO 직원 급여 현황'에 따르면 19명의 임직원 중 박원화 대표이사는 조직위원회 국제협력관을 겸임하면서 7300만원의 급여 외에 3000만원의 직급 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

부사장 1억·소장 8000만원

열악한 재정...고임금 논란

진을 위해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카보 재무본부 부사장의 연봉은 1억원으로 책정됐으며 건설본부 본부장은 6개월 계약직으로 5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카보가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경주장관리소의 소장은 8000만원, 부장은 625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보의 경우 600억원의 자본금

이 바닥난 상황으로, 현재 경주장 소유권을 비롯 운영·관리권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경주장 부지 매입비(287억)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직위 확대에 따라 계약주체로서 대외교섭업무와 경주장 운영에 관한 업무만을 맡는 등 카보 역할이 축소됐고 올봄 개최권료 및 중계권료에 대한 협상에도 실패하는 등 성과가 미흡한 점도 '고임금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5년까지 10%, 2020년까지 30% ↓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48개 지역기업 할당량 맞추기 비상

연말까지 감축이행 계획서 제출해야

설비 교체·녹색 사업장 구축 등 부심

기아자동차·삼성전자·광양제철소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렸다.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10%, 2020년까지 30%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4일 환경부와 지역 주요 기업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기아자동차·삼성전자·GS칼텍스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기업 48개 사업장을 포함해 전국 471개 대상 기업들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할당된다.

산업별 감축 목표는 2020년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 대비 전기·전자 업종 61.7%, 디스플레이 등 전자표

시장지 39.5%, 운수·자차용 34.3%, 자동차 31.9%, 반도체 27.7%, 시멘트 8.5%, 정유·석유화학 7.5%, 건설 7.1%, 조선 6.7%, 철강 6.5% 등이다. 전체적으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1300만t 대비 30%인 2억4400만t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9월까지 471개 대상 기업에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할당되고, 기업들은 이 조정안에 맞춰 연말까지 감축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시·기아자동차 광주공장·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금호고속, GS칼텍스 여수공장·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지역에 분사 및 주요 사업장을 둔 48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자사에 감축량이 얼마

나 할당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전력 사용이 많은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전체 전력 사용량 가운데 산업용이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여수산단이 53.7%, 광양제철소가 20.4%를 사용하고 있다.

여수산단 내 GS칼텍스는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정별·단위별 에너지 원단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감축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고도화설비 증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2% 증가하면서 고심이 커졌다.

GS칼텍스는 2015년 도입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GS ETS)를 먼저 실시하고,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전력 소모가 가장 많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저탄소 철강공정으로의 전환과 녹색 비즈니스 확대

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선도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는 2018년까지 총 7조원을 투자해 조강 1t당 CO₂원단위 9%를 감축하는 한편, 에너지 고효율 절감재 보급 및 녹색 성장 사업을 통해 연간 1400만t의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는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녹색 사업장 구축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금호고속은 공회전·과속·급제동을 막는 에코-드라이빙을 실천하고, 차량관리시스템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 추가 감축 여력이 많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J프로젝트 'F1 땅값' 후폭풍

민간사업자들 "농어촌공사 땅값 올려 사업 불투명" 강력 반발

F1(포틀러인) 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공개된 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영암·해남 관공제청 기업도시(J프로젝트) 땅을 매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경주장 땅값 폭등으로 인근 부지의 개발사업비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3면)

F1경주장과 가장 인접해 있는 삼호지구(866만1000㎡·262만평)와 부동지구(1418만3000㎡·429만평) 개발사업 시행자인 서남해안레저는 F1경주장 부지의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 전남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회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간척지인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권리를 조성완료된 토지로 평가받고자 한다"며

서 "기업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 할 미래의 개발이익까지도 반영해 줄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 개발에 맞게 민간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인근 농지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지연될은 물론 향후 사업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서남해안레저는 또 "오는 10월 F1대회 개최 전 준공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서둘러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요구하는대로 평가 기준이 맞춰져 가격이 올라갔다"고 비판했다.

서남해안레저는 애초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정부에 제출한 부지 매입 비용을 3.3㎡당 2만4750원으로 평가하고 골프장(81홀) 조성 및 리조

트 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해왔다.

하지만 이번 F1 경주장 부지 감정평가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시행사 입장이다. 삼호지구가 경주장 인근의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인데다, 감정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F1 경주장 감정 평가 기준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눈덩이처럼 투자 비용이 불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21.87km² 개발을 맡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이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탁금(102억)을 걸고 농어촌공사에 '최고장'을 보낸 상태다.

이들은 적법하게 감정평가금액이 나왔는데도 농어촌공사가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재검증 절차를 요구,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회사는 "기업도시의 취지와 목적상 민간기업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도 오히려 일반적인 조건보다도 훨씬 불리한 사업조건을 제시한다던 사업추진이 지연될은 물론 향후 사업자체도 불투명하다"고 경고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한방스파
한울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쉽터

한울 정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의 조화와 균형 상태인 '울려'를 구현하기 위한 한울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한울정의 특징

- 1인 1실, 1:1 케어
- 한방 화장품 한울 정품 사용
- 금수저&은수저 마사지
- 아모레퍼시픽 뷰티포인트 사용 및 5% 적립 가능

아리따움 충장직영점 2층에 있습니다. ◆ 예약문의 : 062)432-3030